

입당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 지혜 6,12-16

화답송 | 시편 63(62),2,3-4,5-6,7-8(◎ 2c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

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목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 1테살 4,13-18 <또는 4,13-14>

복음환호송 | 마태 24,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 마태 25,1-13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조성동 아우구스티노 신부 | 사목국장

|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전례력 '가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평신도 주일'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 등의 용어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보다 생활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이 취소 또는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 더구나 내년까지 지속될 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걱정 가운데 모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 곳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이사 6,8)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사야 예언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구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처럼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겠지만 특히 평신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길이고, 평신도 주일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교회의 구원 사명에 대한 참여이며, 모든 이는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그 사도직에 임명된다. ...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가 오로지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세

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안에서 교회를 현존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관련되는 이 사도직에 더하여 평신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계 사도직과 더 직접적인 협력을 하도록 불릴 수도 있다."(『교회현장』 33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제의 동반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껴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 만물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희망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 장소, 만남에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특히나 위령 성월이 되면 어릴 적 읽었던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이 떠오릅니다. 나의 '비문'에는 무엇이려고 써질까?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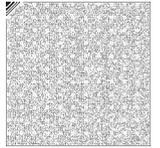
공세리성당. 충남 아산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마태 25,13)



복음 말씀에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밤을 새우며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늘 깨어 이렇게 촛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누며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설레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 평협회장

미천하고 낮은 이를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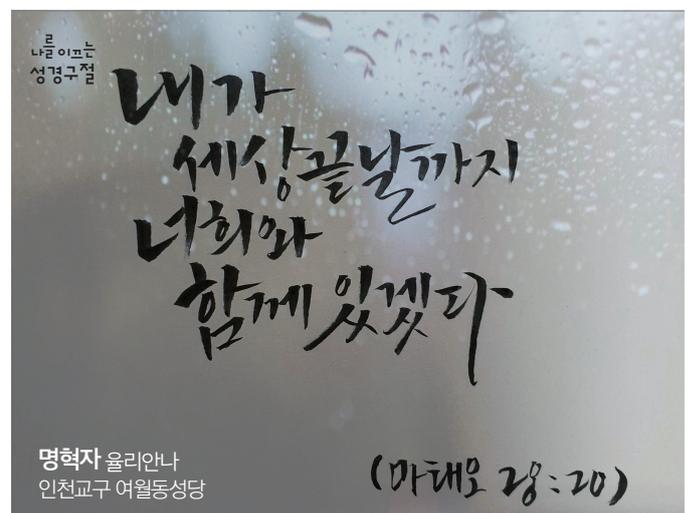
저는 5대 선조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이어온 구교우 집안 후손입니다. 하지만 일찍 혼자되신 조모님께서 불교에 심취하시는 바람에 신앙이 이어지지 못한 채 지내다가 부모님께서 선종하시기 직전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제가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당숙 덕분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저희 당숙께서는 오랫동안 본당의 전교 회장으로 봉사하시고, 신심도 깊으셨습니다. 생전에 교구로부터 인정받아 교황청에서 수여하는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기사 작위까지 받으셨지요. 명절 때면 항상 형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당숙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꼼짝없이 앉아서 듣고 있다가 다른 손님이 오시면 형님께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빨리 나가자고 눈짓을 해, 어렵사리 탈출해 웃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한 당숙의 뜨거운 신심과 기도가 저희 집안에 신앙이 다시 이어지는 밑알이 되었습니다. 위령 성월을 맞아 당숙을 향한 고마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는데, 아마 지금쯤 당숙께서도 천상에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 머리도 백 단풍이 든 채 어느덧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40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입교하여 성가정을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래전 주님과 빅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차 독일 출장 중이었는데, 배우자와 통화 중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배우자의 건강만 책임져 주시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덕분에 배우자는 건강을 회복했고, 수호천사처럼 저를 항상 응원해 주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게 살아갑니다. 저를 지탱해 주는 큰 원동력이지요. 이후 저는 감히 깰 수 없는 주님과의 계약 안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빅딜은 참 잘한 선택이었고, 저는 행복한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어서부터 직장 업무로 분주한 나날을 지낼 때도 주님께서 저가 늘 작은 봉사라도 하도록 불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없이 부족한 제가 감당하기에 벅찬 봉사를 받았지만,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천하고 낮은 이를 낮추보지 않으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오묘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길을 계획하여도 발길을 이끄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의탁하는 봉헌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죽음의 행진'을 아십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79년 12월 25일 서울주보 2면에는 가르멜회 수녀님 두 분의 사진과 함께 '서울 성모영보 깔멜회 창립자 수녀 선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영보 깔멜회의 창립자 자비의 마리 막달레나(마들렌) 수녀님(프랑스인)께서 12월 5일 오후 8시 40분에 선종하셨다. 수녀님은 수도 생활 54년 중 프랑스에서 14년, 나머지 40년은 한국에서...(중략)”

6.25 전쟁 때 3년간 북한으로 피랍돼 '죽음의 행진'에 끌려가셨다가 모스크바와 프랑스를 경유해서 1954년 1월 29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 여생을 마쳤다고 쓰여있습니다.

서울 성모영보 가르멜회의 설립자인 프랑스 수녀님 5명은 1950년 6월 27일 서울이 함락되기 전, 메리놀 수도회의 바이런 주교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탈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인 수녀들만 탈 수 있다는 전갈에 한국 수녀들과 생사를 같이하기 위해 탈출을 포기하고 남을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은 서울을 사흘 만에 함락한 후 정부 인사, 경찰, 군인 가족, 지주들을 인민재판이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처형하였습니다. 북한군은 서울 침공 초기부터 교회 인사들을 회유하여 선전 선동에 동원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명동대성당의 미사도 8월 6일까지는 주일미사가 겉으로는 정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초순부터 북한군은 이미 주교관, 수녀원, 고아원 등 교회 시설들을 강점했고 한국과 외국인

◎ 서울 성모영보 깔멜회 창립자 수녀 선종
 서울 성모 영보 깔멜회의 창립자 자비의 마리 막달레나 수녀님(프랑스인)께서 12월 5일 오후 8시 40분에 선종하셨다.

수녀님은 수도생활 54년 중 프랑스 엘 깔멜에서 14년, 나머지 40년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협력자로서 모범적 기도생활을 하셨고, 6.25사변때는 3년간 이북에서 남치생활과 “죽음의 행진”에 끌려가셨다가 모스크바와 고국을 경유하여 1954년 1월 29일 다시 한국땅에 돌아오셔서 여생을 마친 것이다.



▲ 생전의 마리 마들렌 수녀(안경쓴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체포해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11월, 전세가 역전되자 서울 등 남한 지역에서 체포했던 성직자와 수도자, 개신교 선교사, 미국 고문단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서양인들을 평양과 증강진을 거쳐 하창리 포로 수용소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이전부터 체포되었던, 덕원과 함흥지역의 성직자, 수도자들은 10월부터 북쪽으로 이동시키며 만포를 거쳐 옥사독 수용소에 억류시

켰습니다. 이 고난스러운 이동 과정을 '죽음의 행진'이라 부릅니다. 죽음의 행진과 혹독한 수용소 생활 중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상당수가 고령이라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도 잘 주지 않은 채 영하 40도의 엄동설한에 '죽음의 행진'을 강행시켜 상당수의 포로들이 동사 혹은 아사하거나 인민군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가르멜 외국인 수녀님도 죽음의 행진에서 두 분은 돌아가시고 세분은 3년의 포로생활 후 본국인 프랑스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송환된 지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두 수녀님 중 마리 마들렌 수녀님께서 북한 포로 생활을 생생한 증언으로 남기신 책이 『귀양의 애가』입니다. 포로가 되어 북한군에게 죽은 국내외 가톨릭 사제, 수사, 수녀, 신학생들의 숫자가 150명을 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에 대한 시복시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1월 8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문창우 주교, 제주교구장직 계승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75세)가 2020년 11월 22일에 사임하며,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57세)가 제5대 제주교구장직을 계승합니다.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 1 회칙「찬미반소서」(Laudato Si) 반포 5주년 후속 장기 사목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 교서를 ‘한국 천주교 주교단’ 명의로 발표하기로 함. 특별 교서에 딸린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각 교구의 상황에 따라 실행하기로 함.
- 2 한국기독교사목연구소가 가톨릭평화방송과 공동으로 제작한 ‘가톨릭 영상 교리’(총 47편)를 승인. ‘가톨릭 영상 교리’는 예비신자 교리, 신자 재교육, 주일학교 등에서 교리교육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3 설이나 한가위 명절이 금요일이거나, 설이 재의 수요일과 겹칠 경우, 명절 당일만 주교회의 차원에서 단식과 금육을 관면하고, 연휴 기간 중 명절 당일이 아닌 다른 날들에 대한 단식과 금육 관면은 각 교구장의 재량으로 결정하기로 함.
- 4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을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 기념행사로 주교단 공동 집전 희년 개막 미사를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 낮 1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하기로 함. 개막일에 맞추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의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함. 또한, 교구별로 희년 사제대회(2021년 6월 11일,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와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2021년 8월 21일, 솔의 성지), 희년 폐막미사(2021년 11월 27일, 각 교구 주교좌 성당)를 진행하기로 함. 희년 주제는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로 정하였음. 한편, 교황청 내사원에서 보내온 전대사 수여 교령의 전대사 조건 등을 희년 개막일 즈음하여 발표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 희년 기도문, 희년 전대사를 받기 위해 방한할 성지와 순례지, 기념행사 등을 소개하는 『희년 살이 안내책』을 배포할 예정. 이번 희년을 맞이하여 구체적인 활동과 실천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 의미를 더 살릴 계획.
- 5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2021년 2월 28일(사순 제2주일)에 각 교구 모든 본당에서 일제히 시복을 위한 기원 미사를 봉헌하기로 함. 최양업 신부님 탄생 당일(2021년 3월 1일(월))은 가정자 최양업 신부님 관련 교구(청주, 원주, 대전)에서 현양 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한편, 근대 서양 문화의 선구자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길 위의 천국’이 2021년 11월 20-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두 차례 공연될 예정.
- 6 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승인. 청소년사목위원회는 주교회의의 상임위원회(2015년 12월 7일)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청소년 사목 설문조사 연구 계획 - 청소년 사목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연구 작업의 결과물인 ‘질적·

양적 연구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지침서 집필을 시작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함.

- 7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생명 수호, 낙태 반대라는 교회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함. 생명 수호와 낙태 반대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주교회의의 기정과 생명 위원회에서 준비할 계획.
- 8 한국기독교나사업연합회 정관 개정안, 한국기독교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 한국기독교언론인협의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승인.
- 9 한국 주교회의의 정관(제15조 6호, 제16-18조)에 따라 임기 3년의 주교회의의 임원을 선출함. 또한 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현동 아버스를 선출함. 더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의 홈페이지(<https://cbck.or.kr>) 참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 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8년 11월 12일 김희중 요셉 신부(31세)
- 1950년 11월 9일 오연희 마티아 신부(40세)
- 1952년 11월 12일 최문식 베드로 신부(71세)
- 1973년 11월 9일 왕송석 야고보 신부(32세)
- 1987년 11월 14일 조인환 베드로 신부(74세)

2021년 서울주보 코너

“나를 이끄는 성경 구절” 손글씨 공모전

접수대상: 손글씨에 자신 있는 신자 누구나
작품규격: 정사각형이나 가로로 긴 직사각형(※세로로 긴 형태는 불가)
작품개수: 1인 1작품
작품형태: ① 종이(에 붓과 펜으로 쓴 작품은 스캔하여 스캔본 접수)
 ② 디지털 작품은 해상도 300dpi의 JPG 파일 접수
접수기간: 11월1일(일)~11월30일(월)
 ※ 공모 당선작은 2021년 서울주보 지면에 게재됩니다
 (당선자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 QR코드 클릭

교구정일림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4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나경환 신부 제3회 개인전: 1전시실
 전시일정: 11월11일(수)~23일(월)
 가톨릭사진가회 정기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11일(수)~16일(월)

서울대교구 법원 공식

아래 공식되신 분은 11월23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두희 라우렌시오, 이미래 엘리사벳, 백종익, 전석진, 최종덕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안내

주제: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혼모· 부를 위한 예방적 대안과 회복적 대안)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곳: 11월17일(화) 14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명동) / 문의: 02)460-764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심수녀회	11월21일(토) 14시~18시	소피이 기도의 집(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3993-0316 남궁영미 수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1월15일(일)	본원(미아리)	010-9816-0072(pddm.or.kr)
한국외방선교회	12월6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힘을 위한 개인 피정

때: 수시 가능 / 문의: 010-3469-1750

곳: 수리치골 성모성심의 집(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주최)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현 아빠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4차	12월25일(금)~2021년 1월2일(토)	
제85차	2021년 1월22일(금)~30일(토)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02)575-7661 가톨릭성음악

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음악치유 피정반	11월18일~12월2일 매주(수)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11월17일~12월1일 매주(화) 13시~17시	회비: 15만원

교육

성물조각·영성가구 교육생 모집(가톨릭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입학생 모집

기숙사 학교 / 기간: 단기(1년)·장기(1년 이상)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대림 온라인 자비와 회복 세미나

지도: 김태광 신부(팔로티회)

때: 12월1일부터 매주(화·금) 총 8회

낮강의 14시·밤강의 22시 중 선택

문의(접수): 010-8911-5957 전주교사도직연합회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 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메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

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모집

문화영성학 석사학위과정(5학기)

모집전공: 문화영성전공, 사목영성전공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초구 반포대로 222)

모집기간: 11월27일(금)까지 / 면접일: 12월4일(금) 예정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2021학년도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1월30일(월)~12월11일(금) / 전형일: 12월23일

(수),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883(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교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계과계뺀·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지원교사모집: 검정고시 교과 멘토링, 탁구 동아리 지도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월3동) / 02)2691-6543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원서접수: 11월23일(월)~12월31일(목) - 전형일 12월

19일(토) /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인터넷 (www.jinhakapply.com) 접수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석·박사 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모집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광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자는 평신도

문의: 010-5399-3371, 010-9068-7346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단 모집

대상: 중1~고2 남녀 학생(2020년 초6학년 포함)

내용: 리더십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대면 포함)

접수: 11월29일까지 / 홈페이지(www.stvin.or.kr) 참조

곳: 서울 성빈센트청소년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 / 문의(접수): 02)926-3440, 010-6880-9605

미사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1주기 추모미사

때, 곳: 11월12일(목) 14시, 백석 하늘의 문 성직자 모원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인내

볼길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문제, 개인, 부부, 가족, 영성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첫회 무료)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fac.or.kr

강서푸드뱅크·마켓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후원금, 식자재(쌀·라면·조미료 등) 및 생활용품 / 후원문의: 02)2635-1377, 02)2663-1377

후원금 계좌: 신한 100-026-821055 강서푸드뱅크마켓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영적상담 및 생활 피정 / 문의: 010-2310-9432

다음카페: 하비엘 영성학교(주최) / 예수회 신부

온라인 복음화학교 '치유치유TV' 구독 안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유치유TV를 검색한 후 '구독'을 누르면 됩니다

내용: 치유와 위로의 영상 강의와 평신도영성 이야기

기가 있습니다 / 02)753-8765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2021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및 기념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모마당(주차 100대, 신도림역 2번

출구 셔틀버스 운행 가능), 소형 혼인미사 및 기념미

사를 위한 작고 예쁜 경당(10~20명 참석 미니웨딩, 각

종 가정 기념 미사(은혼·금혼·환갑·질순)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833-9439 도림동성당 사무실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여성의 전화 상담

여성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우울·불안, 가족갈등, 대인관계 / 문의: 02)990-936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가족치료: 가족, 직장 동료 등 관계자들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10세 이상 참가 가능(상시)

청소년 감정코칭: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상처치유 프로그램으로 진로 코칭으로 유도됨(상시)

전문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공황, 불안, 우울, 가족, 부부, 영성

소장: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문의: 010-9295-5912 / 홈페이지: www.dstcoun.net

직원모집

잠실7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 문의: 02)416-7286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인원 주간관리직원 1명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

및 방화관리자격증 소지자 우대) 야간관리직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민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 11월20일(금)

까지 우편(우 05573, 서울시 송파구 백계고분로12길 26 잠실7

동성당) 및 이메일(baeanto1955@seoul.catholic.or.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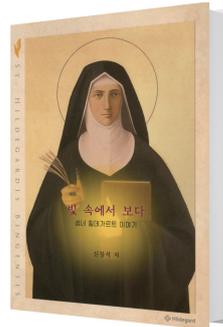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차동엽 신부의
7가지 선물**

김상인 엮음
위즈앤비즈 | 300쪽 | 1만6천원
문의: 031)986-7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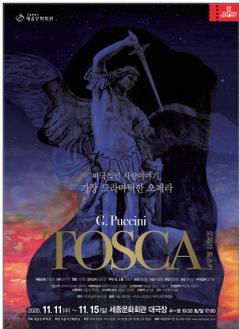
차동엽 신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희망'을 비롯해 그의 철학과 신앙관, 삶의 지혜가 묵묵히 녹아있다. 책을 읽으며 독자들은 그가 아직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곁에서 살아숨 쉬고 있음을 체험할 것이며 그가 왜 그렇게 달려왔는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신간
**빛 속에서 보다
성녀힐데가르트 이야기**

신창석 지음
힐데가르트출판사 | 112쪽 | 1만원
문의: 02)2266-3605

이 책은 21세기에 성인품에 오른 중세 예언자이자 여성 철학자인 힐데가르트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그녀의 필사본 세밀화 「천사들의 합창」에 담긴 예언과 명상을 중점적으로 해설했다. 몸과 마음으로 지친 이 시대의 아픈 이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오페라
토스카

공연시간: 수~금 19시30분, 토~일 17시
입장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문의: 02)399-1000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명 30% 할인

세 남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오페라 <토스카> 공연이 11월11일(수)~15일(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다. 주인공 '토스카와 연인인 화가' '카바라도시', '토스카에게 욕망을 품은 권력자 경시총감 '스카르피아의 사랑과 질투, 탐욕, 증오가 푸치니의 주옥같은 음악과 함께 무대에서 펼쳐진다.



영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상영관: 서울 극장
문의: 010-8895-4696, 010-4284-6348
현장 결제 시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 시 주보 1부로 1천 원 할인 (중복 할인 불가)

다큐멘터리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가 11월19일(목) 개봉한다. 세상으로 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한 평 독방에서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카르투시오 수사들의 세상을 향한 끝없는 기도와 특별한 사랑이 수도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불안에 지친 우리를 찾아온다.



방송시간 | [본방송] 매주 금 7시~9시
[재방송] 일 7시~9시, 월 19시~21시
목 14시~16시

첫 방송 12월 3일 금요일 7시
가톨릭 청춘어게인 (120)

대리를 맞아 cpbc 가톨릭평화방송 TV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가톨릭 청춘어게인(120분)"은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과 cpbc 가톨릭평화방송이 함께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으로 만나는 노인대학입니다.

노년기의 즐거운 신앙생활과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고, 신나는 노래와 율동, 즐거운 만들기, 그리고 어르신들의 고민 상담뿐 아니라 함께 떠나는 성지 순례 등 다양한 코너들을 선보입니다. 코로나19로 분당 활동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행복한 신앙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년대비 교무금 · 주일헌금 비교표]

(단위: 원)

총 계	2019년	2020년(❖)
교 무 금	1,330,142,060	1,233,928,800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 93% 수준		
주 일 헌 금	2,124,076,399	736,272,045
2019년 대비 2020년 주일헌금 35% 수준		
2019년 대비 2020년 교무금+주일헌금		57% 수준

(❖ 2020년 교무금 · 주일헌금 총계는 예상수치입니다 !)

**본당 재정 결산 보고 및
재정 확충을 위한**

2020년도 교무금 책정 · 납부 요청

2020년 10월 1일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9월 본당 수입은 2019년 1~9월 대비 약 20억 원 가량 부족하고 이 중 교무금과 함께 본당 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일헌금은 전년대비 3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합니다(상기 [비교표] 참조).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경비 지출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본당 운영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 ·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제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 · 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2016년에 작성 · 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 ·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획 2단계 기금
(10월 26일 ~ 11월 1일 : 1,800,000원)
누계 : 1,855,249,203원

전 영 신 : 1,000,000원 | 임 선 : 500,000원
익 명 : 200,000원 | 익 명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명동대성당 평일 · 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 ※토요일 오후 6시 · 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 · 중 · 고등학생

◎ 미사 시간 재편에 따른 본당 사무실 업무 시간

요 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07:00~20:00	사무실 폐문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울) 신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른 본당의 세부 지침 (2020년 10월 18일자 발령)

10월 12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목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지하성지는 11월 8일(주일)부터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11월 1일(주일)부터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그동안 중단되었던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지도 신부님과의 논의 후 단체장과 참석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단체장은 방역 준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동안 중지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예비신자 교리반은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됩니다.

•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이름, 세례명, 연락처, 소속 본당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후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입장 전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명동 보름장 개장

·일시 : 11월 1일~11월 29일 매주 주일 10:00~15: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 가톨릭회관 앞마당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

교황청 내사원은 2020년 10월 22일에,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전대사 수여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2020년 11월 한 달간 전대사를 수여한다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묘지를 참배하여, 또는 마음만으로도,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자에게 수여되는 전대사는 통상적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이지만 올해는 이 기간을 11월 한 달 동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노인들, 병자들,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시기에 거룩한 장소에 다수의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당국의 조치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들은, 모든 신자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며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전대사의 일반적인 3가지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또는 성모님 성화 앞에서 위령 시간 전례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목주 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같이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거나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의 복음을 봉독하거나 자신의 삶의 슬픔과 고난을 하느님께 바치고자 하는 자비의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정 추기경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 》

11월 30일(월)은 교구장이신 영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추기경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교를 위한 기도
- * 미사참례, 목주기도, 화살기도, 희생

◎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연중 제 32 주일이자 평신도 주일인 오늘은 매 미사마다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0/26-11/1).....34,143,000
 - 모든 성인 대축일 헌금.....16,693,430
 - 감사헌금 (10/26-11/1).....1,660,000
- 김 다비드 / 김 비비안나 / 이 마리아
장 바드리시아 / 조 스테파노 / 최 로사리아
최 베로니카 / 황 비비아나